

불과 1200 m의 자연이 그대로 숨쉬는 가키타가와

누마즈시와 미시마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미즈쵸우. 맑을 청, 물 수. 문자 그대로 맑은 물이 솟는 거리로서 그 중심이 가키타가와입니다. 시가지 가운데에 홀연히 솟아나는 물은 모여서 강폭 30~50 m, 연장 약 1200m의 하천이 되어 이즈 아마기산을 원천으로 하는 가노가와와 합류합니다.

가키타가와와 물은 풍부한 수량과 함께, 1년중 거의 15℃라는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더할나위없이 좋으며 시즈오카켄(현:縣) 동부지역 35만인의 음료수로써 그리고 공업 용수등으로써 하루에 합계 약 30만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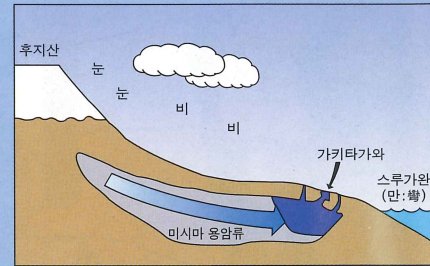
그리고 이 유역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귀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키타가와가 자만하는 동식물들, 바꾸어 말하면 가키타가와와 청정류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키타가와와 풍부한 물이 낳은 아름다운 자연은 전국적으로도 인정되어, 1983년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의 자연 백선」, 1985년 「일본의 명수 백선」 등에 선정되어 많은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칼칼 솟아나는 눈 녹은 물:설해수(雪解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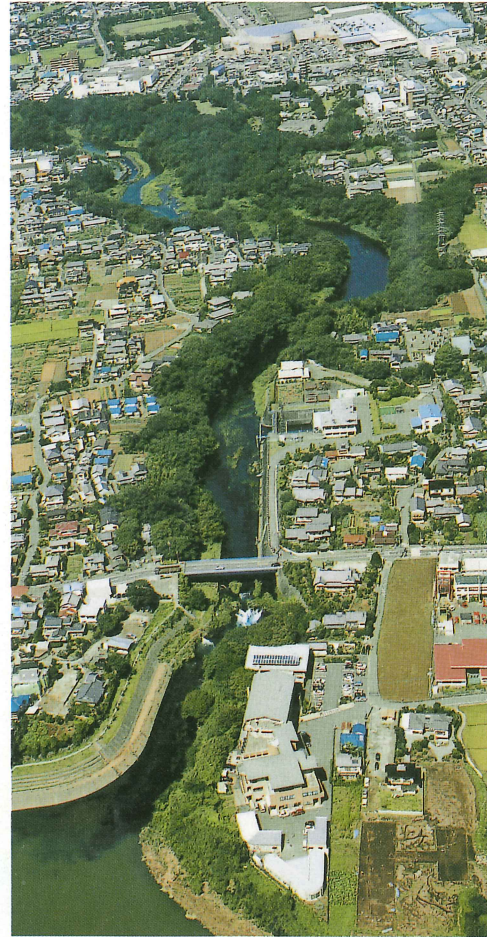
도시 하천으로 있으며 월등한 수질을 자랑하는 가키타가와와 후지산계 지표수입니다. 약 8500년전 후지산 대폭발로 대량의 용암이 이 가키타가와와 상류까지 흘러왔습니다. 「미시마 용암류」라고 이름 붙인 이 용암은 다공질층으로 물을 침투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오래된 후지 화산의 표층이 물을 침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지산 주변에 내린 비나 눈이 미시마 용암류 사이에 지하수가 되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40Km 떨어진 시미즈쵸우 국도 1호 바로 밑에서 칼칼 솟아나는 수량은 하루에 약 100만톤으로 추정되며 샘물로서는 동양 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이 알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후세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키타가와와 강이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다 것을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키타가와로 인해 날마다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키타가와 자연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며 후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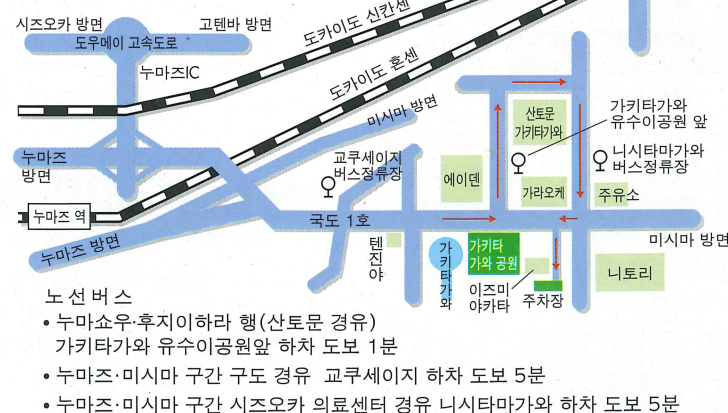
교통 안내

신칸센	특급 아사기리 118분	버스 15분
	합계 133분	
신칸센	신칸센 60분	버스 15분
	합계 75분	
신칸센	신칸센 120분	버스 15분
	합계 135분	
도메이 고속	도메이 고속 103Km	차 6Km
	합계 109Km	
도메이 고속	도메이 고속 222Km	차 6Km
	합계 228Km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

버스	시즈오카 56분	신칸센 고다마 28분	미시마 15분
	합계 99분		

안내도



시미즈쵸우 야쿠바 (읍사무소) TEL(055)981-8224

소재지 우편번호411-8650 시즈오카켄 순토군 시미즈쵸우 도우니와 210-1
http://www.kakitagawa.tv/shimiz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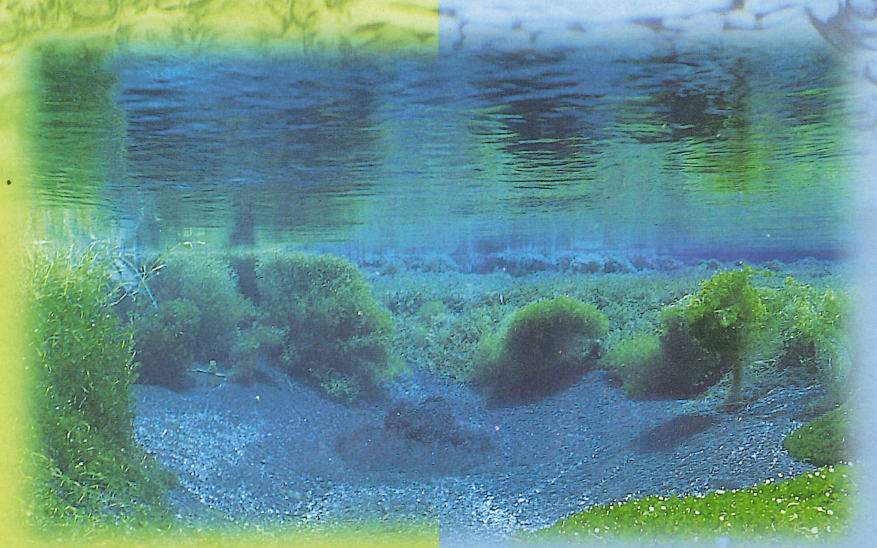
再生紙を使用しています



후지산이 만든 동양 제일의 샘물
Asia's Largest Natural Spring—Nurtured by Mt. Fuji

가키타가와

柿田川



시즈오카켄 /시미즈쵸우

静岡県/清水町

자연을 지키는 시민의 쉼터에

柿田川公園

가키타가와 공원



제 1 전망대 第一展望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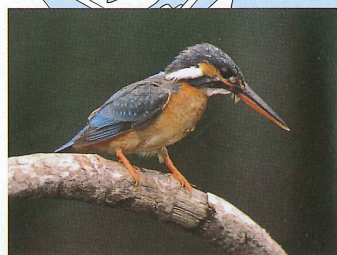
FIRST OBSERVATION DECK

이곳은 가키타가와와 최상류 지점입니다. 후지산 상부에서 내린 눈이나 비가 지하수가 되어 국도 밑에서 홀연히 솟아나옵니다. 크고 작게 수십개의 샘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물총새의 비행과 10월 상순에서 12월에 걸쳐 거슬러 올라 온 은어의 산란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물총새 (파랑새목 물총새과)

머리는 암녹색으로 작은 파란 반점이 있으며 몸은 청녹색과 오렌지색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의 비취라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새입니다. 물가의 나뭇잎, 혹은 날아서 물 속으로 낙하하여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물총새는 시미즈쵸우 새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어 (은어과)

청정류에 사는 은어과(科) 담수어로 전체 길이는 약 30cm입니다. 몸은 유선형으로 등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 온 성어는 1㎡의 텃새권을 만들어 물밑의 돌에 붙은 물푸레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년된 은어는 낚시를 산란을 위해서 강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노가와 원류에서 내려 온 은어가 수온이 높은 가키타가와에 떴어 들어와, 상류의 자갈에서 떼를 지어 산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반점이 있는 것은 "은어과(科) 산천어")



가키타가와에서 볼 수 있는 생물②

미시마 매화마름 (미나리아재비과)



담황색의 꽃이 매화와 닮아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질 오염에 민감해서 가키타가와에서도 중상류부 밖에 생식하지 않습니다. 가키타가와를 대표하는 식물의 하나로서 청량한 샘물 모래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보통 5월부터 9월경이지만 가키타가와에서 연중 내내 핀다. 미시마시 라쿠쥬엔의 고하마이케(池: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시마시의 하천등지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을 감추고 가키타가와에 넓은 군락지로 남은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키타가와에서 볼 수 있는 생물③

검은물잠자리 (물잠자리과)



수생식물이 많이 나는 청정류에서 생식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켄(현:縣)내에서 가키타가와 유역 밖에 볼 수 없는 극히 드문 잠자리입니다. 암수 둘다 녹색을 띤 금속광택이 너무 아름다우며 암컷은 날개 끝이 흰점이 있어 판별하기 쉽습니다. 보통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볼 수 있지만 가키타가와에서는 11월 초순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키타가와와 시즈오카켄(현:縣) 동부지역의 생활용수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도시부에 남겨진 귀중한 동식물의 생식지로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하천 주변에도 택지화의 물결이 일어 이대로 방치하면, 강을 보호보존하기가 극히 곤란해진다고 염려되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미즈쵸우에서 「자연보호·보전」과 「커뮤니케이션광장 확보」를 목적으로 "가키타가와 공원" 만들기를 추진해, 1986년 4월 시미즈쵸우 시민의 쉼터로서 가키타가와 공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공원 내의 제 1, 제 2 전망대에서는 연중 변함없이 물이 솟아내는 「샘터」를 볼 수 있으며, 샘터 광장에서 실제로 발을 담그어 샘물의 냉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정비는 이후에도 이어져 모든 정비가 완료되어지기까지 막대한 경비와 오랜 세월이 필요되지만, 시미즈쵸우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배우는 곳, 자연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곳으로서 가키타가와와 자연을 후세에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가키타가와 공원 안내도 KAKITA RIVER PARK GUIDE MAP



제 2 전망대 第二展望台

SECOND OBSERVATION DECK

이곳의 샘물은 예전 방적공장이 우물로서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햇빛과 모래가 생각지 못한 물빛을 만들어 냅니다.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며 수위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하천의 모습은 오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せせらぎ 세세라기 (줄줄 시냇물) THE STREAM

시민이나 방문객의 쉼터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芝生広場 잔디광장 THE LAWN



湧水広場 샘물 광장 THE WADING PLACE

여름이 되면 물장난을 즐기는 아이와 부모 일행으로 북적입니다.



駐車場 주차장 PARKING AREA

시미즈쵸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승용차, 약 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木製八つ橋 나무다리 산책로 THE WOODEN WALKWAY

공원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다리에서 가키타가와 중류의 여유로운 물살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풍부한 샘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향을 지켜 주십시오.

- 울짙이나 나뭇길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 원내는 더럽히지 말며 쓰레기나 빈 캔은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 담배 꽂초를 던지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오토바이,자전거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십시오.
- 캠핑나 취사는 하지 마십시오.
- 동식물의 채취는 하지 마십시오.
- 동전등을 샘물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